



문의 : 2006서울WLIC  
 조직위원회 사무처  
 담당 : 조명준/박경숙  
 (volunteer@ifla2006seoul.org)  
 전화 : 02-535-7085  
 팩스 : 02-535-7084

# 2006 서울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 조직위원회 소식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전 세계 도서관인의 축제와 만남의 장인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 제72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서울대회가 2006년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사서 및 정보전문가, 기업인부터 도서관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세계 150여 개국에서 5,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세미나, 컨퍼런스는 물론 전시회, 문화공연 등이 한데 어우러진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전 세계 도서관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 됨을 느낄 수 있는 도서관계 최대의 축제로서 대회에 참가한 모든 이에게 신선한 경험이 될 것이며 우리 도서관사에 한 획을 그을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각국의 참가자들이 불편함 없이 보다 편안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함께 일할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여러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모 집 요 강]

1. 활동기간: 2006. 5. ~ 8.
  - 행사 준비 기간 (2006. 5. ~ 8.)
    - : 대회 시작 전 자원봉사 필요 시 사전 선발할 수 있음
  - 행사 기간 (8. 18. ~ 8. 26.)
    - : 업무 별 행사 1주일 전 혹은 1주일 후까지 적용될 수 있음
2. 모집대상
  - 행사에 관심 있는 학생 및 일반인 중
  -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가 가능한 사람으로
  - 국제행사에서 현장요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자
  - 해외 동포나 국내 거주 외국인일 경우 한국어로 의사소통 가능한 자

- 지방 및 해외에 거주할 경우 활동 기간 중 교통비 및 체제비의 본인부담이 가능한 자
  - 자원봉사자 선발 및 교육 등의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가 가능한 자
3. 지원방법
- 지원마감일: 2006. 3. 10. (금)
  - 개인응모를 원칙으로 함
  - 방 법
    -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자원봉사자 모집' 배너를 통해 지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전자우편 (volunteer@ifla2006seoul.org)으로 전송. 자원봉사 신청서는 전자우편으로만 접수하며 신청 시 반드시 메일 제목에 "2006서울WLIC 자원봉사 신청"을 명시할 것. (지원 신청서가 스팸 메일로 처리될 수 있음.)
    - 신청서 작성 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와 한메일(hanmail.net / daum.net)을 제외한 이메일 주소를 명시 요망. (공지메일이 반송처리 됨)
4. 선발원칙
- 지원분야별 경쟁선발
  - 전기간 및 사전 자원봉사 활동 참여 가능자 우선 선발
  - 특정 기술이 필요한 활동의 경우 전문가관의 공인된 자격이나 능력을 바탕으로 선발 (외국어가 필요한 활동일 경우 면접심사 중 외국어 능력평가 실시)
5. 1차 서류심사
- 지원서 작성이 미비한 자 / 모집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외
  - 지원분야의 우선 순위를 기준으로 소요인원의 200% 내외 선발
  - 심사결과 : 2006. 3. 17. (금) 개별통보 함
6. 2차 면접심사
- 면접에 참석하지 않은 자 / 지원서 기재사항과 사실이 일치하지 않은 자 제외
  - 최종발표 : 추후공고
7. 자원봉사자 처우
-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등록금 면제
  - 자원봉사자 유니폼 및 ID Card 지급
8. 기타
- 지원자의 지원부문과 다른 곳으로 배정받을 수 있음

## [모 집 부 문]

### 1. 진행부문

#### 1) 사무처 지원 (20명)

행사 준비기간에 발생될 수 있는 업무지원부터 행사 기간 동안 사무처에 배치되어 사무처, 행사장 시설물, 기자재 설치 및 관리, 물품 관리 등의 활동을 한다. 튼튼한 체력과 성실함, 조기근무가 필수적이다.

### 2. IFLA Express 팀

#### 1) 기사작성 및 번역 (15명)

모집분야는 영어, 불어, 독일, 스페인어, 러시아어이다. IFLA Express는 대회 기간 중 매일 발간되는 소식지로서 당일의 주요 행사나 대회 현장의 모습 등을 참가자들에게 알려준다. IFLA Express팀은 이 소식지를 위한 기사 작성 및 번역 업무를 수행한다.

3. 행사부문

1) 회의 및 전시 (65명)

회의 및 전시 진행이 원활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회의장에 필요한 물품이나 기자재, 음향, 조명시설을 관리하고, 발표자의 자료가 잘 도착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등의 업무가 주어진다. 언어 능력 및 기자재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질이 요구된다.

2) 안내 (60명)

행사장, 호텔 혹은 공항에서 참가자들에게 각종 안내를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영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 뿐만 아니라 세심함과 친절함이 요구된다.

3) 문화행사 (40명)

학술행사 및 특정 행사를 다채롭게 만들고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대 행사들이 열리게 된다. 파티, 조찬/오찬, 간이무대 등을 준비하고 진행하며 앉아서 하는 일보다 발로 뛰면서 하는 일에 적성과 자질이 요구된다.

※ 자원봉사 신청 시 어학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선발에 우선권을 부여함.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장 일행 청와대 예방



(좌로부터 이원덕 사회정책수석비서관, 배종신 문화관광부차관, 신기남 조직위원장, 영부인, 한상완 조직위 집행위원장, 김태근 국립중앙도서관장)

구랍 23일 오후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장 일행과 문화관광부 배종신 차관은 청와대로 대통령 영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였다.

이 자리에서 신기남 조직위원장은 영부인을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의 명예 위원장으로 추대하였고, 권양숙 여사께서는 이를 흔쾌히 수락하였다. 또한 한상완 집행위원장은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유치과정과 추진현황, 그리고 이 대회가 가져 올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발전과 지식인 올림픽으로서의 파급효과에 관하여서도 보고 하였다.

권 여사는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시겠다고 하였으며, 국민을 위한 작은도서관의 발전에도 깊은 관심을 표시하면서 도서관계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 2006년도 제1차 집행위원회 회의 개최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조직위원회 2006년도 제1차 집행위원회 회의가 2006년 1월 13일(금) 12:00 서초동 강희제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6년도 주요 사업 일정이 검토되었으며 서울대회 개최식, 문화의 밤, 자원봉사자 운영, 방문도서관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안건들이 논의되었다. 회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한상완 집행위원장, 이용남 기획위원장, 김석영 기술위원장, 김태승 협력위원장(이상 전문위원장), 정동열 총괄분과위원장, 이상복 봉사분과위원장, 최희운 홍보분과위원장, 서혜란 학술분과위원장, 윤희운 자료분과위원장, 남영준 행사분과위원장, 오삼균 의전분과위원장, 조순영 시설분과위원장, 김윤실 국내협력분과위원장, 최은주 국외협력분과위원장, 남

태우 언론분과위원장(이상 분과위원장), 조원호 상임자문역, 이현주 사무처장, 김도미 사업팀장, 최정화, 조명준(이상 사무처)

##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 · 한국도서관협회 신년교례회 개최



〈도영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이사장은 건배 제의 중이며, 왼쪽부터 박계홍 前 한국도서관협회장, 김태근 국립중앙도서관장, 이은희 청와대 제2부속실 실장, 한상완 한국도서관협회장, 신기남 2006서울WLIC 조직위원장, 배종신 문화관광부 차관, 배용수 국회도서관장, 유원규 법원도서관장, 신선희 국립극장장〉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와 한국도서관협회는 2006년을 시작하면서 도서관계 및 관련 정부부처, 유관단체 등의 주요 인사와 서울대회 조직위원을 초청하여 1월 16일(월)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배종신 문화관광부 차관 등 내빈 6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2006서울WLIC 조직위원장 인사말씀, 문화관광부 차관 축하말씀, 협회장 감사말씀, 참석자의 자유로운 덕담나누기, 건배 및 축하떡 자르기, 기념사진 촬영, 다과회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축하 말씀을 하시는 배종신 문화관광부 차관〉



〈2005오슬로WLIC 하이라이트 상영 중〉

##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처 개편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처가 개편되었다. 이번 개편을 통해 한국도서관협회 조원호 전 사무총장이 조직위원회 상임자문역으로 위촉되었으며, 이경구 사무처장이 사임하고 이현주 사무처장이 처장직을 맡게 되었다. 이 밖에 국회도서관에서 양성자 서기관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박경숙 직원이 조직위원회로 파견되었으며, 한국도서관협회 최정화 직원이 추가 파견되었다.

**\* 협회소식 \***

**2005년도 하반기 “책 읽는 가족” 선정**



우리 협회는 2002년 9월부터 시작한 가정독서운동캠페인(후원 : 문화관광부,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과 관련, 지난해 7월 상반기 선정에 이어 이번

하반기(2005년 7월-12월) 180개 협회 회원공공도서관으로부터 총 263가족을 추천받아 이들을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가족에게는 한국도서관협회장과 해당 관장 명의의 “책 읽는 가족”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었다. [문의 : 강원영, ☎ 02-535-4868, 전송 02-535-5616]

**\* 국내소식 \***

**문화관광부, 도서관보상금 2006년 지급기준 결정**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는 2005년 12월 23일 (금)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작권법 제23조제3항과 제28조제5항에 규정된 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의 2006년도 지급기준을 결정하였다.

이번에 결정한 교과용도서보상금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2.9% 인상하였으며 도서관보상금의 경우 아직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했다.

도서관보상금의 경우 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전송받은 도서를 포함한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할 때 비매품은 1쪽당 3원, 판매용은 5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용형태 및 보상금 기준은 아래와 같다. [문의 :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 02-3704-9474]

구 분	이용 형태 및 보상금 기준		
	출력	전송 (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단행본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비매용	1면당 3원	-
정기 간행물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비매용	1면당 3원	-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3월부터 영상물 무료상영 제한**

문화관광부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영상물 무료 상영을 제한한다. 이는 출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업적 영상물(DVD, VHS)의 무료 상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지방문화원,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지방자치법에 의한 공공시설에서는 발행된 지 6개월 이내의 판매용 영상 저작물의 무료공연(상영)도 저작권자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시행령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그동안 많은 공공 공간에서 DVD 등이 상영되면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판매가 급감한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전체적인 영상물의 부가 판매 시장이 축소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의 공간이 아닌 일반 사기업에서의 무료 상영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비행기, 열차, 호텔, 찜질방 등은 현행과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문화관광부, 온라인 기사에 COI 부착

문화관광부는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의 유통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2005년 12월 21일(수) '문화콘텐츠식별체계 등록관리기관' 6곳을 선정하여 문화콘텐츠식별체계를 부여하였다.

문화콘텐츠식별체계(COI, Content Object Identifier)란 디지털 문화콘텐츠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콘텐츠에 인터넷 주소가 바뀌더라도 쉽게 해당 콘텐츠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콘텐츠의 제목, 사용된 언어, 장르, 기여자 등 식별 또한 관리가 가능하다.

선정된 여섯개 기관은 내년부터 각 소관 업무별로 콘텐츠에 COI를 직접 부착, 서비스할 예정이다. 각 기관별 담당 콘텐츠는 아래와 같다.

문화콘텐츠식별체계 등록관리기관	콘텐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총괄 관리기관)	음악 공공문화콘텐츠
한국언론재단	온라인 기사 콘텐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사진 콘텐츠 건축설계콘텐츠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유산콘텐츠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수집콘텐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방송영상콘텐츠

이와관련 2005년 12월 22일(목)에는 방송회관 회견장에서 식별체계를 일반에 소개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문화콘텐츠 식별체계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문의 : 문화관광부 문화기술인력과, ☎ 02-3704-9695]

## 서울시, 2006년도 도서관 55개소 확충·개관 예정

서울시는 2006년도에 공공도서관 55개소를 확충·개관할 계획이다.



확충되는 도서관은 강북지역 17곳, 강남지역 13곳이며 이 가운데 20곳이 올해 개관할 예정이다. 더불어 학교도서관 15곳도 지역 주민 개방화를 추진 중에 있다.

신규 건립되는 소규모 도서관(열람석 400석미만)은 15곳으로 지역 내 구립도서관의 분관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각종 공공시설 복합화 도서관 11곳, 기존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도서관으로 개관하는 곳 4곳, 학교시설과 도서관을 같이 건립하는 곳 10개교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2008년까지 공공도서관을 129개소로 확충하고, OECD 수준이 될 때까지 계속 확충할 계획이다. [문의 : 서울시 문화국 문화기반시설조성반, ☎ 02-6321-4304]

## 서울시,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서울시는 도서관, 의료시설, 지하역사 및 지하철도상가, 대규모점포, 실내주차장 등 16개 다중이용시설군의 실내공기질에 대해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5년 12월 29일 공포하였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기존에 지하역사 및 지하철도상가에만 적용되었던 「서울특별시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기준조례」를 전면 폐지하고, 다중이용시설 16군에 대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등 4개 항목의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도서관 등 11개 시설군의 미세먼지농도는 현행 150 $\mu\text{g}/\text{m}^3$ 에서 140 $\mu\text{g}/\text{m}^3$ 으로, 일산화탄소는 10ppm에서 9ppm으로 강화된다.

기존 시설 중 환기시설이 노후화 되었거나 환기량이 부족한 시설은 자체 점검을 통해 유예기간 동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새로이 적용받는 시설은 준공전에 강화된 기준에 맞는 충분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우상호 의원실, 저작권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 개최

우상호 의원실은 저작권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를 2005년 12월 27일(화)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12월 6일(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였으나 다양한 계층에서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쟁점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문의 : 국회의원 우상호 의원실, ☎ 02-788-2837]

■ 프로그램

〈사회자〉

김병일(인하대 법대교수, 지적재산권)

〈토론자〉

- 우상호(국회의원, 문화관광위원회, 열린우리당)
- 이은우(변호사, 진보네트웍센터 운영위원)
- 최경수(저작권심의위원회 연구실장)
- 전응휘(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
- 전유림(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본부장)
- 김지연(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 이대희(인하대 법대교수)

### 문화관광부, 「이달의 문화인물」 사업 및 「이달의 문화달력」 제작 사업 종결

문화관광부는 1990년 7월부터 매월 시행해 온

‘이달의 문화달력’ 및 ‘이달의 문화인물’ 사업을 2005년 12월 “최복(조선후기 화가)”을 끝으로 종결했다.

‘이달의 문화인물’ 사업은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한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해 온 것이다. 1990년 7월의 문화인물로 “추사 김정희” 선생을 선정한 이래 2005년 12월까지 15년 6개월 간 총 186명의 문화인물을 선정하였다.

문화관광부는 그동안 선정된 ‘이달의 문화인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료집을 발간하여 전국 의 도서관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같이 종결되는 ‘이달의 문화달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 문화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 ☎ 02-3704-9438]

### 경기도사서협의회, ‘경기도 공공도서관 독서상담교육 수료식 및 특별강연회’ 개최



경기도사서협의회(회장 정문택)는 ‘경기도 공공도서관 독서상담교육 수료식 및 특별강연회’ 행사를 2005년 12월 26일(월) 안양시 석수도서관에서 개최하였다. 수료식에는 정창섭 경기도 행정부지사, 신중대 안양시장, 김태승 한국도서관협회 부회장 등 많은 내빈과 도서관 관계자 3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교육은 도내 80개 공공도서관 사서직 338명이 주1회 3시간씩 퇴근 후 4개월 동안 총 72시간 교

육을 받은 것으로, 그 중 312명에게 독서치료 2급 자격증과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또한 수료식과 함께 한성대학교 이용남 교수가 “왜, 다시 책과 도서관을 말하는가”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고, 경기도사서협의회 정문택 회장이 “사서직의 자질향상”에 대해 정책 설명회를 하였다. [기사제공 : 안양석수도서관, ☎ 031-389-3811]

## 수원시도서관사업소, 홈페이지 개편



수원시도서관사업소(소장 권혁노)는 2006년 새해를 맞아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1월 5일(목)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는 수원시도서관사업소 홈페이지(lib.suwon.ne.kr)와 바른샘 어린이 도서관 홈페이지(bchild.suwon.ne.kr)이다.

개편된 홈페이지에는 각 도서관별 정보와 수원시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전체 도서관의 책과 홈페이지의 내용을 찾아주는 통합검색 사이트 기능을 강화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년 말 개편한 3개 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는 ‘신나는 우주여행’, ‘멀티미디어 세상’ 등 특성화된 “어린이도서관 과학체험관”의 이용시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가상 체험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공한다.

## 충북중앙도서관, 향토작가 코너 마련



충북중앙도서관은 2005년 12월 20일(화) 2층 종합자료실내에 ‘향수’의 정지용 시인, ‘임격정’의 홍명희 등 ‘향토작가코너’를 설치·개관하였다.

향토작가코너는 충청북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향토작가의 문학작품과 출향작가 문학작품, 각종 문인단체의 협회지 및 동인지 등의 자료를 한 곳에 모아놓은 것으로 1,200여권이 수집 비치되어 있다. 또한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작가의 약력, 작품활동 등을 게시하였다.

도서관은 앞으로 이 코너를 통해 충북지역 출신 문학작가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수집·전시·보존함으로써, 지역작가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학활동을 육성 장려할 것이다. [문의 : 충북중앙도서관 사서과, ☎ 043-276-8307]

## 진북 진안공공도서관, 새롭게 단장

진안공공도서관(관장 허남미)은 1978년도에 신축되어 진안교육청으로 사용되다가 지난 1990년도부터 공공도서관으로 개관, 활용되어 왔으나 건물이 낡아 이용에 불편이 많았다. 이에 보다 나은 도서관 이용환경 마련을 위해 2005년 10월 말부터 50여일 동안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여 새롭게 단장했다.

앞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 및 지역주민들은 쾌적하고 아늑한 문화생활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문의 : 진안공공도서관, ☎ 063-433-2442]



## 대구광역시립서부도서관, 독서 골든벨 개최



대구광역시립서부도서관(관장 권계순)은 2005년 7월부터 '서구 청소년 독서골든벨'을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청소년들의 독서를 통한 건전한 문화정착 및 독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매월 1개교씩 방문하여 40문항의 독서 및 교과, 시사, 상식문제를 80명의 출전학생들이 푸는 것으로 탈락한 학생들은 패자부활전을 통해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 대회 중간에는 반짝퀴즈를 내어 응원단 학생들에게도 문제 풀 기회를 준다.

2005년 7월 12일(화) 경일중학교를 시작으로 평리중학교, 경운중학교, 경상여자중학교에서 운영하였으며, 2005년 12월 15일(목) 제1대 독서골든벨로 경상여자중학교 3학년 1반 이미령 학생이 뽑혔다.

2006년 2월 9일(목) 오후 1시에는 2005년 '서구 청소년 독서골든벨' 결승전이 열려 그동안 운영한 4개교 80명의 학생들이 출전하여 왕중왕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문의 : 대구광역시립서부도서관 열람봉사과, ☎ 053-560-8832, 기사제공 : 대구광역시립서부도서관]

## 울산남부도서관, '행복아버지독서회' 창단

울산남부도서관(관장 고경희)에서는 울산 지역 아버지들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 시키고, 건전한 가족 독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6년 1월 12일



(목)에 '행복아버지독서회'를 창단하였다.

이번 창단모임에서는 독서회 명칭 및 회칙 제정, 연간활동계획 협의, 2월 토론도서 선정 등에 대해, 독서회 회원들의 자유롭고도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행복아버지독서회'는 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기혼 남자를 대상으로, 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후 7시에 도서관에서 모임을 가지며, 현재 안동석 회장을 비롯한 1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 한 해 동안 '행복아버지독서회'는 독서토론을 비롯해 문학기행, 야외토론회, 초청특강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회원가입은 연중 가능하다. [문의 : 052-260-7697, 기사제공 : 울산남부도서관]

## 제주도 (사)이어도정보문화센터, '마을도서관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운영 발표회' 개최

(사)이어도정보문화센터(이사장 김학준)는 2005년 12월 26일(월)부터 28일(수)까지 '마을도서관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운영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마을도서관을 활용한 이번 문화예술교육은 지역문화예술자원과 마을도서관이 매개가 돼 어린이들의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성을 강화하고자 기획되었다.

시범사업 첫 해인 이번 행사는 제주신화를 주제로 이에 대한 독서, 연극, 구연,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을 시도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행사는 세 가지 마당으로 나누어져 첫째날인 26일(월)에는 제주신화를 주제로 한 그림·도서 전시회가, 둘째날인 27일(화)에는 ‘마을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전망과 과제’란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마지막 날인 28일(수)에는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신화퀴즈대회’가 열렸다. 하원애향마을문고와 보목마을문고, 이어도 책사랑도서관에서는 그림자극과 신화연극 등 제주신화와 얽힌 다양한 활동들을 보여주었다. [문의 : (사)이어도정보문화센터, ☎ 064-732-9833]

### 성균관대학교, 한국 경학자료 DB구축



성균관대학교 존경각(尊經閣·동아시아학술원 도서관)은 ‘한국 경학 자료 DB 구축’ 2차년도 사업을 최근 마무리했다. 이미 인터넷(koco.skku.edu)으로 제공해 오던 대학, 중용, 논어, 맹자 등 사서(四書) 이외에 시경, 서경, 역경 등 삼경(三經)등을 원문과 함께 이미지도 볼 수 있도록 했다.

### 전북대학교도서관, BIC 디지털도서관 건립 발표

전북대학교도서관(관장 장성수)은 BIC(Book and Information Center)개념의 디지털도서관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신축하는 BIC(지식정보센터) 디지털도서관은 연건평 21,000㎡(6,353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진다.

각 층별로 지하에는 도서관 지원시설을, 1층에는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자료실 및 운영지원시설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2층에서 4층까지는 주제 자료실로, 5층에는 학술연구지원 및 보존 자료실로 이용된다. 총 300만권의 도서자료와 100만점의 비도서, 기타 웹기반자료(전자저널, 웹디비, 멀티미디어 등)를 다양하게 갖출 계획이다.

전북대학교는 최첨단 BIC 디지털도서관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자체 등 기관 및 초·중·고등학교에 최신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도내 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학술정보 상호 교류 협력 체제를 갖추어 전북지역의 정보 인프라 구축과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계획이다. [문의 : 전북대학교 도서관 ☎ 063-270-3466]

### 경상대학교도서관, ‘남명학교문헌시스템’ 개통



경상대학교도서관(관장 정보영)은 ‘남명학 관련 고문헌 원문 DB구축 사업(2차)’ 완료보고회를 1월 3일(화) 개최하였다.

2005년까지 약 14억원을 지원받아 도서관 고서실인 문천각에 소장되어 있는 고서 본문 35만면을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로 구축하고, 활용도가 높은 고서의 본문 한자(漢字) 약 1천 만자(원고지 5만매 분

량에 해당)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남명학교문헌시스템(<http://nmh.gsnu.ac.kr>)'을 개발하였다.

앞으로 남명학교문헌시스템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역사정보통합검색시스템 및 민간 포털사이트의 국가지식시스템, 그리고 경상대학교도서관 학술정보시스템 등과도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다. [문의: 경상대학교도서관 정리팀 ☎ 055-751-5101, 기사제공: 경상대학교도서관]

### 국사편찬위원회, 사이버 조선왕조실록 구축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만열)는 1년 여에 걸친 조선왕조실록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최근 완료하고 관련 사이트([silok.history.go.kr](http://silok.history.go.kr))를 개통했다. 이는 기존의 CD-ROM으로 제작된 조선왕조실록 원전 자료 저작권과 국역 자료 전송권을 구입한 후, 누락된 내용을 보완해 인터넷에 맞게 구축한 것으로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조선왕조실록에는 기존 디지털 자료에는 없는 그림과 악보 등 이미지까지 추가하였으며 이를 상업 목적이 아닌 문화 콘텐츠나 교육 자료로 누구나 무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의: 국사편찬위원회, ☎ 02-503-8812]

### 서울특별시립어린이도서관, 그대로 유지

서울특별시립어린이도서관(관장 김순자)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서울시는 시립어린이도서관지키기대책위원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어린이도서관 유지 방침을 최종 통보해 왔다.

2005년 6월 경찰청은 자신들의 소유로 되어 있던 어린이도서관 별관에 보육시설을 만들겠다는 발표를 하며 별관 서고를 철거했다. 이에 학부모들과 도서관 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시립어린이도서관지키기대책위'를 구성해 도서관지키기 운동에 돌입한지 6개월만에 어린이도서관이 제모습을 찾게 됐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경찰청과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을 면담하며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경찰청 보육시설에 대한 대체부지 요구를 서울시와 교육청에 했고,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여 대체부지를 확보해 경찰청 소유의 시립어린이도서관별관과 교환하기로 최종 결정됐다고 한다.

### 경기도소방학교, '소방공무원 도서기증 운동'으로 소방방재전문도서관 기반조성



경기도소방학교(학교장 이일섭)는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 및 소방과학 연구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소방방재전문도서관을 구축키로 했다. 그 첫번째 단계로 소방방재관련 전문서를 확보하고자 '소방공무원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도서기증운동은 경기도 내 30개 소방관서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 1도서 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4,000권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도내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9,176권의 많은 장서를 모을 수 있었다.

최다 기증 기관은 파주(1250권) 및 용인소방서(1286권)가, 개인은 360권을 기증한 임정호 소방학교 교수운영과장을 포함한 10명이 선정되어 2005년 12월 26일(월)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소방학교는 1월 중 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며, 2006년도에는 추가적인 전문도서 및 사서직 확보를 추진하여 소방연구기능은 물론 대국민 소방행정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데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문의: 경기도소방학교 임세환 ☎ 031-329-0312]

## 경북점자도서관, 점자도서관 설립 서명운동 펼쳐

경북 점자도서관(관장 이재호)과 시각장애인, 자원봉사자 등 10여명은 2005년 11월 28일(월)부터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과 시내 중앙상가 등 경북 전역에서 범국민 서명운동 펼쳤다.

경상북도에 등록된 시각장애인 수는 1만1168명으로 경기, 서울, 부산, 경남에 이어 5번째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도서관은 포항의 경북점자도서관이 유일하다.

현재 4층 건물의 2·3층을 임대해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어 녹음실이나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음대로 설치할 수도 없는 등 어려움이 많아 시각장애인 전용 점자도서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올 연말까지 서명운동을 계속한 뒤 경북도와 문화관광부, 청와대, 국회 등을 찾아 경북점자도서관 건립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경북점자도서관, ☎ 054-277-2999]

## 송경태 전북 시각장애인 도서관장, "2005년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에 선정"

후천적 장애를 딛고 사하라 마라톤을 완주한 전북 시각장애인 도서관장인 송경태 씨가 "2005년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에 선정됐다.

2005년 12월 28일(수) 환경재단(이사장 이세중)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도전과 실천을 통해 각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밝힌 이들을 망라한 88인 중(단체포함) 송경태 관장이 포함, 시상을 받게 됐다.

시상식은 12월 29일(목)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룸에서 열렸다.

##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문헌정보학 도서 8권 출품

국제적인 권위를 가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문헌정보학 도서가 다수 출품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05년 10월 19일(수)부터 23일(일)까지 열린 '2005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참여한 한울출판사는 출품 도서 가운데 문헌정보학 도서 8권을 포함 시켰다. 국제적인 도서전에 문헌정보학 도서가 다수 출품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는 도서관과 문헌정보학이 다른 학문들과 나란히 우리 사회의 새로운 관심 영역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청신호로 생각되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사제공: 부산대학교도서관 신주영]

- 이재환 지음,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정보정책』, 2003.
- 고인철 외 지음 / 이병목 기획, 『위대한 도서관 사상가들』, 2005.
- 강순애 외 저, 『서지학개론』, 2004.
- 신주영 지음 / 김정근 기획 감수, 『독서치료와 도서관의 역할』, 2004.
- 송영임 지음 / 김정근 기획 감수, 『독서치료와 공공도서관 서비스』, 2004.
- 김민주 지음 / 김정근 기획 감수, 『어린이의 상한 마음을 돌

보기 위한 독서치료, 2004.

- 김경숙 지음 / 김정근 기획 감수. 『성인아이 문제와 독서치료』, 2004.

- 김수진 지음 / 김정근 기획 감수. 『대학생의 '문제음주'와 독서치료』, 2004.

## 대한출판문화협회, 독서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박맹호)는 2006년 1월 5일 (목) '2006년 연중 독서문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책을 읽으면 행복합니다'라고 쓴 대형 펼침막을 출판문화회관 외벽에 설치했다.

대형펼침막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내용을 기본으로 정기적으로 디자인 및 콘텐츠를 변경할 예정이다며 홈페이지(www.kpa21.or.kr) 초기 화면에도 같은 내용을 띄울 예정이다. 협회는 올해 이 캠페인을 시작으로 독서 관련 단체들과 연계해 독서문화의 확산을 위한 사업을 입안,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한국독서학회, '1월의 독서인' 선정

한국독서학회(회장 박인기)는 국민 독서운동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매달 '이 달의 독서인'을 선정하기로 하고 그 첫 인물인 '1월의 독서인'으로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를 뽑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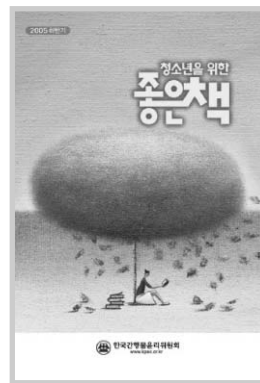
이덕무(1741~1793)는 '책만 보는 바보'(看書癡·

간서치)라는 자호를 쓸 정도로 책을 끔찍이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은 인물이다.

한국독서학회는 '이 달의 독서인' 선정을 위해 지난 6개월간 선인들의 독서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현대 한국인들의 독서 의식에 큰 영향을 준 만한 독서인 20명을 최종 선정했다. 독서학회가 뽑은 '한국의 독서인 20'은 이덕무 이외에 퇴계 이황, 실학자 서유구, 원효 대사, 만해 한용운, 성철스님, 교육가 이오덕, 세종대왕, 유길준, 백광홍(조선 중기 문인), 최항(조선 전기 문인), 추사 김정희, 김산('아리랑'의 주인공), 실학자 박지원·박제가·정약용·홍대용·최한기, 국학자 안확, 국문학자 양주동 등이다.

독서학회는 이들 가운데 1명씩을 '이달의 독서인'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을 위한 좋은 책』(2005년 하반기) 발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김종심)는 2005년 하반기에 선정한 청소년 권장도서 59·60차 도서를 수록한 『청소년을 위한 좋은 책』(2005년 하반기)을 발간했다.

이 책은 문학, 역사 등 총10개 분야에서 추천된 청소년 권장도서는 2회분을 묶은 것으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및 공공도서관, 대형서점, 문화원 등으로 배포하고 있다.

또한 수록된 내용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웹진(www.kpec.or.kr/webzine)을 통해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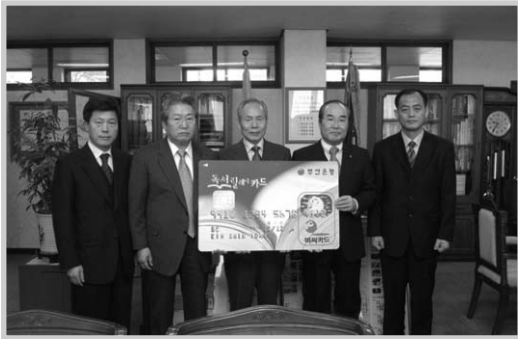
## 국제아동도서협의회한국위원회, '20 BIB KOREA' 개최

국제아동도서협의회한국위원회(이하 KBBY)는 브라티슬라바 일러스트레이션 비엔날레(Biennial of Illustrations Bratislava, 이하 BIB)의 한국 작가 작품전을 2006년 1월 4일(수)부터 1월 31일(화)까지 남이섬 안데르센 홀에서 연다.

BIB는 그림책 원화전으로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지닌 행사로 1967년부터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홀수 해마다 열리고 각 국에서 추천 받은 그림책 작가들이 참여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해 제20회 BIB에서 '새가 되고 싶어'로 금사과상을 받은 한병호를 비롯해 지난해 행사에 참여한 한국 작가 18명의 작품 96점이 전시되었다. [문의 : 국제아동도서협의회한국위원회 서울 사무국, ☎ 02-747-0729]

## 부산은행, '독서 릴레이카드' 출시



부산은행(은행장 심훈)은 도서구입 시 할인혜택을 주는 '독서릴레이 카드'를 2005년 12월 19일(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2005년 12월 15일(목) 부산시 교육청에서 심훈 부산은행장과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 김상훈 부산일보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은행 독서릴레이카드' 발급과 관련 조인식을 맺었다.



이 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2가지 형태로 발급되며, 발급 첫해 신용카드 연회비는 무료이며 이 카드로 부산시 서점조합 회원가입 서점 중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약 203개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면 금액의 3%가 할인된다.

부산은행은 이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의 연간 신용판매사용액 중 0.2%를 별도 적립해 매년 범국민독서운동본부에 씬지도서관 설립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부산은행 카드사업팀, ☎ 051-803-0851]

## 스타벅스·네이버 '책읽는 네이버, 책읽는 스타벅스' 행사 마련

대형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가 책을 이용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스타벅스는 네이버(www.naver.com)와 함께 "책 읽는 네이버, 책 읽는 스타벅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압구정점, 청담점, 광화문점 등 주요 10개 매장에 서재를 설치하여 네이버 네티즌들이 추천한 100권의 책을 방문고객들에게 소개한다. 또한 매월 작가와 책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저자와의 만남'과 '독서 토론회' 등을 열어, 고객들의 책에 대한 관심을 높여갈 계획이다. [문의 : 스타벅스 www.istarbucks.co.kr 네이버 www.naver.com]

## 통계청 발표, 우리나라 국민 도서구입비 '제로' 수준

1월 3일(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5년 3/4분기 전국 가구의 서적·인쇄물 지출액은 가구당 월 평균 1만 397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월 평균 소비지출액인 204만 8902원의 0.5% 수준이다.

2/4분기의 가구당 월 평균 서적구입비 9880원 보다는 조금 늘었지만 2003년 1/4분기의 1만 2591원보다는 2000원 가량 줄었다.

'서적·인쇄물 지출액'에는 신문과 잡지, 그림·그림책, 교양서적 등이 포함되며 학습용 교재와 참고서는 제외되는 금액으로 신문구독료가 보통 한달에 1만 20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인들의 책 구입비는 거의 '제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산직 가구의 월 평균 서적·인쇄물 지출액은 5260원으로 사무직 가구 1만 9951의 4분의1 수준에 머물렀으며 무직 가구(7213원)보다도 적었다.

또한 사회를 반영하듯 읽는 책도 경제, 처세술·자기개발, 재테크 등 실용서 위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 \* 국외소식 \*

## ALA, 2006 동계 도서관대회 개최

미국도서관협회(ALA Midwinter Meeting)는 2006년 1월 20일(금)부터 1월 25일(수)까지 텍사스 산 안토니오(San Antonio, Tx)에서 2006년도 동계 도서관대회를 개최한다. 전람회는 곤잘레스 컨벤션 센터에서 1월 20일(금)부터 23일

(월)까지 열린다.

이번 동계 도서관대회에서는 3000개 이상의 관련 업계 및 위원회의 회의가 열리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강연자들이 최신의 화제를 대상으로 200회 이상의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 미국 월셔 K-타운 주민의회, 초등학교에 책 기증

월셔 코리아타운 주민의회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한인 타운 내 5개의 초등학교에 도서관 책 구입을 위한 도서관 지원금 250달러를 각각 기증했다.

한인 타운 내 5개의 초등학교에 기증된 도서관 책 구입 지원금은 영어 외에 한국어나 일본어, 또는 스페인어 등 다른 언어로 된 도서를 구입하는 데도 쓰일 예정이다.

## 미의회도서관, '토이스토리' 도서관에 보존

디즈니와 픽사의 공동작품인 '토이스토리'가 컴퓨터 애니메이션으로선 처음으로 미의회도서관이 선정하는 국립영화등기부(National Film Registry)에 등재됐다.

지난 1989년 설립된 국립영화등기부는 중요한 문화적, 역사적 혹은 미학적인 의미를 지닌 영화들을 선정해 보존작업에 우선권을 부여해왔다.

영화를 선정한 미의회도서관의 사서 제임스 빌링턴은 발표문에서 "우리가 선정한 영화들은 반드시 미국 최고의 영화거나 가장 유명한 영화가 아니지만 우리에게 문화적, 역사적 혹은 미학적 의미를 지닌 작품들"이라고 말했다.

미의회도서관은 대중이 지명한 1천편의 후보작품들을 놓고 도서관 영화담당 부서 직원과 국립영화보존위원회 위원이 긴 토론을 거쳐 25편의 영화를 추려냈다.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들은 자체적으로 영

상원을 운영해 제작 영화들을 보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립영화등기부에 등재되면 미의회도서관 산하 영상원이나 기타 정부기관에 보존돼야 할 영화로 특별 취급되며, 보존작업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현재 총 425편이 등재되었다.

## 미국, 대졸자 69% 어려운 책 읽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

미국도서관협회(ALA)는 지난 10년 사이에 대학 졸업생들의 독해 능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전국교육통계센터(이하 NCES)에서 실시한 미국 전국 대학생を対象으로 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발표에서 특히 졸업생의 31% 정도만이 어려운 서적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책을 읽은 뒤 책에 담긴 기본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측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예를 들면 상반된 주장을 담은 사설을 읽도록 한 뒤 얼마나 정확하게 관점의 차이를 파악하는지 등을 조사한 것이다.

동일한 내용의 조사에서 2003년에는 대졸자의 약 41%가 산문이나 짧은 문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2년에 비해 10%가량 떨어지는 수치라고 이 조사기관이 밝혔다.

이 기관은 또 16세 이상 성인 1만9000명을 대상으로 산문 독해 능력과 수학 문제풀이, 문서해독 능력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어려운 산문 내용을 독해할 수 있는 대졸 출신이 31%에 그쳤으나, 과거에 비해 독해 능력이 중간 정도인 사람은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맡은 NCES는 대학생 학력 저하의 뚜렷한 이유는 밝혀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컴퓨터와 텔레비전 시청 등이 생활화 되어 책을 읽는 데 익숙하지 못한 세대가

대학생이 됐으나, 대학들은 아직 이들에게 어떻게 고등교육을 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 캐나다국립도서관문서관, 셀프디지털복사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캐나다국립도서관문서관은 정보접근법과 사생활침해법으로 야기된 각종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1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셀프디지털복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은 개인용 디지털 및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여 도서관문서관의 소장자료 중의 일부자료에 대해 직접 촬영할 수 있으며 기관소장 마이크로필름프린터와 스캐너로 자료를 복사할 수 있다.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도서관문서관측은 이러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 영국국가도서관, 노벨상 관련 전시

영국국가도서관에서는 2005년 12월 7일(수)부터 2006년 3월 15일(수)까지 '아름다운 마음들 : 노벨상의 정신' (Beautiful Minds: Capture the spirit of Nobel achievement)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개최한다.

스톡홀름 노벨박물관(Nobel Museum)이 제공하고 볼보자동차가 후원하는 이 전시에서는 영국국가도서관 소장의 알렉산더 플레밍(Alexander Fleming)의 문서들을 볼 수 있으며, 사무엘 베케트(Samuel Beckett)등 30명의 노벨상 수상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월부터는 사반테 린퀴비스트(Svante Lindqvist) 노벨박물관장을 비롯한 노벨상 관련자의 강연이 있으며, 청소년들 대상의 노벨상 관련 과학실험 공간을 제공하고, 문학, 과학, 평화, 경제상 관련 워크숍도 개최된다. 또한, 노벨상수상작품을



직접 구입할 수도 있으며, 테오도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를 비롯하여 10명의 노벨상 수상자의 육성음성은 인터넷으로도 제공된다.

### 영국의 시인 바이런 자필 원고, 런던대학 도서관에서 발견돼

영국의 대표적인 낭만파 시인 바이런이 남긴 자필 원고가 런던대학 도서관에서 발견됐다고 BBC 방송이 1월 4일(수) 보도했다.

현존하는 유일한 이 자필 원고는 바이런과 친분이 있었던 사무엘 로저스가 쓴 책에 책갈피처럼 끼워져 있었다.

도서관 사서 수전 스테드는 로저스가 1810년 출간한 책 『추억의 즐거움』의 책장을 넘기다 지금까지 분실된 것으로 알려졌던 바이런의 자필 원고 원본을 발견했다.

이번에 발견된 자필 원고는 1812년 4월 12일자로 돼 있었으며 우정과 추억을 주제로 한 시가 적혀 있다. 이 시는 4년 뒤 발행된 시집에 포함됐으며 비평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 프랑스·독일 등 유럽 독자검색엔진 개발

인터넷 검색엔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구글에 대해 유럽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라틴어로 '검색하기'라는 뜻을 가진 '쿠아에로(Quaero)'라는 이름의 독자적인 검색엔진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 것이다.

유럽의 야심작 쿠아에로는 단순한 검색엔진 차원을 넘어 데스크톱PC와 모바일, 심지어 TV까지 연결해 영상과 음성·텍스트를 번역하고 확인하며 찾아볼 수 있는 세계 최첨단의 도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프랑스 방송들은 미국의 CNN, 영국의 BBC에 대응해 CFII라는 국제TV네트워크를 구축,

내년에 방송할 계획이고, 최근엔 구글의 야심적인 '북 스캐닝(book-scanning) 프로젝트'에 맞서 온라인 도서관 구축작업에 나섰으며 유럽은 지난 달 미국의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와 경쟁하기 위해 위성을 발사하기도 했다.

### 싱가포르 공공도서관에 에티켓 감시인 배치

싱가포르의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최근 도서관 정화캠페인의 하나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에티켓 감시인을 뽑아 23개 공공도서관에 배치했다.

이들은 도서관을 돌아다니다가 떠들거나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선도하고 소파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을 깨우는 등 도서관의 질서를 바로잡을 일을 하고 있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인 바라프라사드 씨는 "이 캠페인은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공간을 개인의 시설물처럼 소중하게 사용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 신설 도서관 \***

### 여수시립울촌도서관

- 개관일자 : 2005. 12. 26.(월)
- 면 적 : 대지면적 1,512평,  
건축면적 471평
- 관 장 : 윤길식(행정주사)
- 주 소 : (556-892) 전남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65-1번지 외
- 전 화 : 061-690-7182,7183
- 팩 스 : 061-690-8158
- 홈페이지 : <http://www.yeosuslib.or.kr>



- 특 징 : 지상 2층 규모, 각종 공연과 문화강좌를 개최할 수 있는 자동화시스템을 갖춘 시청각실(다목적실)과 정보검색코너, 저시력자를 위한 독서화상기, 장애우를 위한 승강기 등을 갖추고 있음. 아동자료실 내부에는 초등학교생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위한 책읽어주는 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기차모형 열람대 (밤골동화기차) 비치

- 전 화 : 063-278-9403
- 팩 스 : 063-278-9404
- 홈페이지 : <http://lib.jeonju.go.kr>
- 특 징 : 지하 1층, 지상 3층, 아동실·유아실·전자정보실·일반자료실·강의실 등이 마련되어 있음. 어린이도서관을 특화하여 유아들이 엄마와 함께 책도 읽어 줄 수 있는 유아실을 아동실과 별도로 구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자료실 휴관일은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과 법정공휴일.

## 전주시립송천도서관



- 개관일자 : 2005. 12. 26.(월)
- 면 적 : 부지 1,684평, 건축면적 1,013평
- 설 계 : 한성종합기술단
- 주 소 : (561-816)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168-5(덕진구 호성로 441)